

19세기 선비행장(先妣行狀)류 글에 형상화된 어머니의 가르침

- 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중심으로

김현미*

<차례>

1. 서론 : 조선시대의 교육 주체로서 어머니
2. 자녀교육의 시작 : 초학(初學)의 길잡이
 - 1) 초학 교육에 임하는 태도 : 엄한 의방
 - 2) 교육의 내용과 방법 : 송경(誦經)을 통한 초학 길잡이
3. 출처에 대한 가르침 : 과거(科擧)와 관련한 태도 교육 양상
 - 1) 과거에 대한 대의적 태도 : 과거보다 수양
 - 2) 권함 이면의 실제적 욕망 : 성취의 기쁨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개인 문집 소재 선비(先妣)행장, 선비 묘지명, 선비 가장 등 ‘어머니’와 관련된 글 속에서 보이는 자녀 교육의 양상을 정리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글들에서 교육 주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부각하여 ‘어머니의 이상적인 모습’을 고착시키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총 30여 작가에 의하여 50여 편 지어진 선비 행장류 글들을 『한국 문집총간』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항목이, 쓰는 이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서 먼저 등장한 모습은, 우선 자녀가 배움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 자녀를 교육하기를 엄한 의방으로서 하는 전통적인 스승의 모습이다. 이러

* 이화여자대학교

한 의방에 따른 교육의 결과는 아들(자녀)의 학습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주로 『소학』 『맹자』 등의 경전을 외었다가 알려주는 행동으로 시작하여 일정 나이가 되면 아들의 선생님을 모시든가 스승의 문하로 보내는 역할로 발전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생애주기상 그 아들이 과거를 볼 즈음이 될 때 과거를 대하는 자세를 교육하는 화소로 다시 등장한다. 과거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대의적으로는 과거보다는 학행 수양을 원하는 전통적인 것과, 그래도 관료에 진출하여 현달을 하기 바라는 솔직한 바람 노출이 같은 출현 빈도로 공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달에 대한 솔직한 바람의 화소가 선비행장류에서 빈출되면서 기본적으로 ‘아들이 선(善)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였으면’ 하는 원리를 설파하는 전통적인 ‘교훈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현실적인 요소가 불거져 나오고 있고, 19세기 선비행장류의 글에는 그것을 ‘의방에 반(反)하는, 비례(非禮)’로서 여겨 삭제하는 일은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어머니, 자녀교육, 19세기, 선비행장(先妣行狀)

1. 서론 : 조선시대의 교육 주체로서 어머니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주로 쓰여진 여성생활사 자료 중 특히 선비(先妣)행장, 선비 묘지명 등 ‘어머니’와 관련된 글 속에서 보이는 자녀 교육의 태도와 양상을 정리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글들에서 어떠한 모습을 부각하여 어머니의 이상적인 모습을 고착시키는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모습 중에서도 특히 자녀 교육의 양상을 특기한 까닭은, 이 모습이 ‘어머니’의 주요 활동 중 공통적인 것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종법 질서가 일반적으

로 내면화된 사회였으며¹⁾, 이 중에서 어머니는 가(家)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자식에 대한 권리와 명분이 달라지는 존재임을 팔복(八服)이라고 하는 다양한 복제(服制)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

그러나 예법상의 다양한 존재 양식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은 ‘효순(孝順)한 성품’과 ‘봉제사 접빈객(奉祭祀 接賓客)’과 같이 어머니의 훌륭한 덕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18세기 이후 조선의 여훈서로서 많이 인용되고 회자된 남당 한원진(1682-1751)의 『한씨부훈』에 있는 “어린아이의 교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렸다”³⁾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양육’은 단순히 아이를 보살피서 자라게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자녀) 교육’이라는 말로 그 의미가 심화되어 어머니의 주된 역할로서 자리잡았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이 어머니의 주된 역할로서 강조되었지만, 조선 후기 ‘자녀 교육’, 혹은 ‘가정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실천철학으로서의 유교사상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전통사회를 이해하는데 유교적 문화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기에 기초교육, 장기교육, 생활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가정교육도 유교문화라는 전체 하에서 생각할 것”⁴⁾이라는 진술 하에, 전통적으로 가정교육의 텍스트로서 거론된 것은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다산 정약용의 언급⁵⁾임을 밝히고 있어서 어머

- 1) 박홍식, 「가정교육 담당자로서의 전업주부의 역할과 가정문제」, 『유교 사상 연구』 제 30집, 2007, 316쪽.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법』, 민음사, 1990, 330쪽 재인용.
- 2) 김정미, 『가와 여성』, 여이연, 2012, 15쪽. 이은영, 「한문 산문에 투영된 어머니」, 『고전 여성연구』 제 14집, 2007, 13~14쪽. 주자가례에서 규정한, 상복을 입어야 하는 어머니의 존재양상은 嫡母, 繼母, 養母, 庶母, 慈母, 乳母, 黜母, 嫁母이다.
- 3) 而教之童幼 專在於母 한원진, 『한씨부훈』, <教子·婦章 第五>, 이경하 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2010, 35쪽.
- 4) 지영숙,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에 대한 재조명」 한국 가정 과학회 학술발표 대회자료집, 2002, 3~4쪽.

니들의 자녀 교육 실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행장(行狀)’ 류 산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장은 한문 문체의 하나로서 명문(銘文) 비지(碑誌) 전기(傳記) 등의 자료가 되는 글이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는 자세하고 길게 쓰는 것이 풍조가 되었기 때문에⁶⁾, 한 사람의 일생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삶을 풍부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 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이 별로 없었는데 바로 이 ‘행장’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은 입전(立傳) 의도보다는 명문이나 비지의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작자층인 사대부 남성들은 자신이 그 삶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가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행장은 고모나 형수 등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자주 창작되었다. 또한 전술했듯이, 그들이 어머니의 생애주기를 따라 그 행적을 서술할 때 주요한 것으로 적은 내용이 자신이 받았던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한 모습이므로 이를 ‘자녀 교육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녀교육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⁷⁾

또한 여기서, 시기상 왜 19세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자녀 교육’의 텍스트로서, 또한 어머니의 주 형상으로서 부각된 ‘가

5) 지영숙, 앞의 글, 6쪽. 율곡의 격몽요결에서는 敬의 자세를 九容과 九思를 통해 실천할 것을 설명한다 하였으며, 단산의 경우는 修身에서 출발하여 품성과 언행을 함께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서술한다.

6)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개정증보판, “행장” 항목. 2007, encykorea.aks.ac.kr

7) 사대부의 행장이 조선시대 교육 과정 및 실체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글은, 교육사학자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박종배, 『조선시대 교육의 과정 및 실체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교육사학』 28권 1호. 2006, 67쪽.

르침을 주는 어머니'를 발견하는 것이 19세기 개인 문집 소재 선비행장류 글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후 시기인 20세기의 '근대적 여성관'에 기반한 어머니의 주된 정체성도 역시 '자녀교육' 혹은 '가정교육'의 담당자였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이 행하는, 혹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주로 잡지(특히 여성지)의 기사에 구체적으로 서술되며, 이러한 기사들이 한군데 모여 자료집으로 만들어진 실정에 있다⁸⁾. 이에 19세기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 양상이 서술된 '어머니 행장'을 분석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축적된 자녀교육 양상의 최후 결과를 살피면서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여성관'을 반영하는 자료들의 대척점에 서있는 '전통교육'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자녀 교육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하는 작업이다.

이에, 19세기 선비행장류 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고전번역원에서 나온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19세기 어머니의 행장과 언행록이다. 이는 총 51여 편이며, 그 작가는 약 30여 명에 이른다.⁹⁾ 그 제목은 <先妣行狀>, <先妣行略>, <先妣言行錄> 등으로 다양하나, 주로 돌아가신 어머니님의 묘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서술한 행장이라는 면에서 일치하므로 함께 다루도록 한다.

8) 박홍식(2007), 위의 글, 325-327쪽, 이화형, 맹문재 외, 『자녀교육』, 『한국 근대여성의 일상문화6』, 국학자료원, 2004, 1~427쪽.

9) 그 지은이는 이만수·남공철·성해웅·신작·오희상·윤행임·서유구·이민백·홍석주·유치명·정원용·이시원·박영원·임현희·이남규·송병선·전우·송내희·허전·장복추·이진상·김영수·한장석·신기선·이건창·김택영·김매순·홍직필·조병덕·유신환·허훈·육용정 총 32인이다. 19세기 20세기 초의 한국문집총간 소재 여성생활사 자료의 규모는 작가 65여 명, 1170편이다. 작가의 반 수 이상이 어머니의 일생에 대한 일화를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일생 서술의 글을 짓는 글쓰기 관습은 여타 다른 대상에 비하여 비교적 인정되고 중시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자녀교육의 시작 : 초학(初學)의 길잡이

1) 초학 교육에 임하는 태도 : 엄한 의방

19세기 개인 문집 선비행장류에 드러난 ‘자녀교육’의 일화는 대개 구성상 ‘시집을 와서 시부모를 잘 공경하였다’는 일화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전 시기인 18세기 선비행장류 글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¹⁰⁾, 행장이라는 것은 대개 대상자의 생애주기를 따라 행적을 순차적으로 그리는 형식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는 양자로 들어갔던 아들이 ‘낳아주신[本生]’ 어머니의 행장을 쓰는 경우 일부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교육은 생애주기 상 시집을 와서 자녀를 낳은 후인 20대 초반 즈음,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 흔히 ‘이를 갈 때’ [鬢鬣]라고 불리는 7-8세가 될 때 시작된다.

이 시기 시작된 어머니의 교육 태도는 “자녀를 교육할 때는 너무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하지 않았고, 그 의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教子不以慈故忘其義]¹¹⁾라는 문장으로 구체화 된다. 이러한 구절은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친함에다 엄한 아버지 같은 존엄함을 겸하였고 골육의 정으

10) 18세기 문인들의 한국 문집 총간 소재 어머니 관련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권의 민우수, 권두경, 2권의 오광운, 유한준, 3권의 이종성, 신경, 남유용, 이광사, 5권의 이복원, 6권의 신정하, 7권의 김주신, 이의현, 최창대, 8권의 안정복 등 총 15인이 저술한 <先妣行狀>류 글들에서 모두 다 어머니의 의방을 중시하고 자녀들의 잘못을 잡아주는 모습'이 주로 부각되고, 심지어 7권의 김주신의 글 같은 경우 '성년이 되어서까지 회초리를 드는 모습'으로 심화되어 드러난다. 그러나, 임성주(8)와 심육(2)의 경우 같이 온화한 말로 가르쳐 일깨우는 어머니' 라든지 '일생동안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다'는 예외적인 모습도 소수 드러나고 있다. 이상 김정미, 조혜란 외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이하 18세기 자료집) 이화한국문화연구원 총서13, 보고서. 2010, 괄호 안의 숫자는 권수 표기.

11) <先妣墓誌> 南公輓, 『金陵集』卷17, 『한국문집총간』 272, 333쪽 홍학희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서. 2013. (이하 19세기 자료집으로 표기)

로 인하여 스승과 학생 사이 같은 의리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이끌어 주시고, 저를 깨우치게 하고 꾸짖어주셨습니다.”¹²⁾와 같은 구절로서 영연문(靈筵文) 등에서 변주되기도 하고, “책읽기를 하지 않을 것이면 풀이나 베어오라”라는 구체적인 꾸짖음으로 화하여, 조정(朝廷)에서 회자되기도 한다.¹³⁾

이러한 ‘바른 의방의 발현’의 모본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정자(程子)의 어머니인 후부인(侯夫人)이다. “선공이 화를 내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관대하게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결코 덮어주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항상 이르기를 ”자식이 불초한 것은 그 어머니가 자식의 허물을 가리고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¹⁴⁾라는 내훈의 이 말은, 19세기 작자들이 어머니의 바른 교육 태도를 서술할 때 원용하는 부분이며, 19세기 행장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후부인이 거론되거나, 후부인 발언의 대의를 생전 어머니님이 말한 내용으로서 인용하기도 한다. 실제 글은 다음과 같다.

12) 以慈母之親，而兼嚴父之尊，因骨肉之情，而寓師生之義。教導余小子，誨責余小子。〈告皇妣貞敬夫人靈筵文〉 尹行恂，『碩齋稿』卷16，김기림 역주，『19세기 자료집 2』，보고사，2013.

13) 小子若曠讀，則俛躬樵山間以媿之曰：“汝孤兒耳。不識字，將樵夫之不如也。”筵臣有以此白上者，教曰：“於予心激感不已。” 내가 책 읽기를 하지 않으면 산에 들어가 직접 풀을 베어 오라고 창피를 주시면서 “너는 아버 없는 아이다. 글자도 모르니 장차 땀나무 하러 다니는 사람만도 못하리라”하셨다. 조정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임금께 말씀드렸더니 임금께서 하교하시기를“내 마음을 격발하는 데에도 그침이 없구나.” 하셨다. <靑灘志〉 尹行恂，『碩齋稿』卷17，〈金石隨錄〉. 김기림 역주，『19세기 자료집 2』，보고사，2013 (이하 번역문 인용은 문집총간 권수 생략，『19세기 자료집』 수록 권수 제시.)

14) 『內訓』권 3 제 5 <母儀> 규장각본，先公 凡有所怒，必爲之寬解，唯諸兒，有過則不掩也。常曰 “子之所以不肖者，由母蔽其過而父不知也。”

여러 자식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덮으려 하지 않으셨고, 그 말씀은 때때로 정자(程子)의 어머니와 같으셨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의로운 방법으로 하시면서 “사랑함이 간절함은 기대하는 바가 깊기 때문이다. 나는 대개 자식 사랑에 빠져 그 나쁜 것을 알지 못함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말씀과 표정에 조금도 겨를을 주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말씀하셔 심하게 혼내시게 하고 말씀하시길, “자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의 허물을 가려서이다.”라고 하셨다.¹⁵⁾

그러나, 『내훈』에서 드러난 후부인의 태도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아버지의 존재를 전제했을 때에야 그 가르침이 완성이 되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란 ‘자식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버지’라는 교육 주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19세기 선비행장류 글들에서는, 어머니의 엄정함이 올바른 교육의 도로서 발현되는 것이 단순히 ‘잘못을 덮지 않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행동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특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을 통틀어 다른 어린 아이가 없었다.(중략) 그래서 사랑이 아주 지극하였다. 그러나 4,5세부터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세워놓고 질책하시며 조금도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셨

15) <先妣贈貞夫人洪氏家狀> 任憲晦, 『鼓山集』 卷15, 『한국문집총간』 314, 426-430쪽. 而其教子女則必以義方曰: “愛之切者, 期望也深. 吾一怪夫溺於愛 而不知其惡者之爲何心也.” <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祔葬誌> 徐有渠, 『楓石全集』 卷8, 『한국문집총간』 288, 458쪽. <先妣贈貞夫人李氏墓誌> 宋秉璿, 『淵齋集 II』 卷39, 『한국문집총간』 330, 247~248쪽.

다. 크게 울면서 다시는 감히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후에야 그만 두셨다. - 홍석주 어머니

매일 공부하기를 권하시고 일러주셨기에 몸소 아버님의 역할을 겸하셨고, 하나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한 점이 있으면 독촉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에 조금의 지체함도 없으셨다. (중략)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오늘날까지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공덕 아닌 것이 없다. - 박영원 어머니

때로는 수업을 받았는데 구를 떼지 못하면 혼을 내시며 읽은 곳을 제대로 마칠 때까지 손으로 가리키며 가르쳐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사랑을 받고 감히 가볍고 방자하게 굴 수가 없었다. - 유치명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잘못이 있을 때면,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 어머니께서 직접 회초리를 치시며 경계하셨다. 우리 넷째 숙조(叔祖)께서 이것을 듣고 탄복하여 이르시길, “어진 어머니로구나!”라고 하셨다. - 임헌희 어머니

자녀를 가르칠 때에는 엄격하여 법도가 있었고 말씀으로는나 얼굴뚝으로는나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중략) 만약 게으름을 피우면서 검속함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완곡하게 타이르셨다. 그런데도 고치지 않으면 회초리를 치시고 악습을 고치겠다고 마음먹고 약속을 한 이후에 그만두셨다. 홍직필 어머니¹⁶⁾

16) 奭周始生時，舉家無他幼穉。 (중략) 其見愛亦至矣。然自四五歲，有一事不循誨，立呵責無少寬貸。至大啼泣，誓不敢復爲然後已。 <先妣貞敬夫人大邱徐氏家狀>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5, 『한국문집총간』 294, 100쪽/ 又勸督課業，兼嚴父，一有懈怠，責勵不少假。 (중략) 不至飄泊，得占科宦，以保有今日。 <先妣[朴鍾淳妻]遺事> 朴永元, 『梧墅集』冊11, 『한국문집총간』 302, 434쪽/ 或課受而不能以句。則責之而指教之終所讀。故不肖雖恃愛。而不敢狎而肆焉。 <先妣孺人韓山李氏[柳晦文妻]行略> 柳致明, 『定齋集』卷36, 『한국문집총간』 298, 230~231쪽/ 不肖兒時有過，時先考不在家，先妣親行榷楚以戒之，吾第四叔祖聞之，歎曰：“賢哉！，母也” <先妣遺事> 任憲晦, 『鼓山集』卷19, 『한국문집총간』 314, 438~441쪽/ 其教子女也，嚴毅有則，不以辭色假之。 (중략) 若惰怠無檢，因循度日，則必曲加開闢，若不改則必施楚撻。期於悛其惡習而後乃已。 <先妣淑人陰城朴氏家狀> 洪直弼, 『梅山先生文集』卷之五十, 『한국문집총간』 296, 550~553쪽. (번역문 진한 글씨 필자)

이렇듯, 19세기 선비행장류 속의 어머니들은 자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매섭게 꾸짖기' 또한 '회초리도 불사' 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방을 발현하신 상황들을 보면, 김영수 어머니 남양 홍씨(?-1853)나 육용정 어머니 성주 이씨(1816~1880)¹⁷⁾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한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하여 '엄한 의방'이라는 교육 태도를 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한 의방으로 대하고 때에 따라 때도 불사하는 '훈육'의 결과로 바란 것은 바로 '책읽기/ 공부'라는 것을 특기할 만하다. 앞서 인용한 바, “매일 공부하기를 권하시며 아버님의 역할을 겸하시고”, “수업을 받았는데 구를 떼지 못하면 혼을 내시며 제대로 마칠 때까지 손으로 가리키며 가르쳐주시며” “우리들을 훈계하며 번번이 해야 할 공부를 엄히 감독하며” “늘 책을 읽도록”하여, 자식으로 하여금 “감히 문목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놀지만은 못하도록”¹⁸⁾ 하는 것이다. 전술한 정자의 어머니

17) 어머니께서 우리들을 훈계하며 해야 할 공부를 엄히 감독하며 이르시길, “(전략) 내 한 목숨이 아직 죽지 않고 오늘까지 보전해 온 것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내가 혹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스스로 포기한다면 빨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네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다. (후략) <先考妣言行錄> 金永壽, 『荷亭集』卷8, 『19세기 자료집 6』 / 어머니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길, “육씨 집안은 대대로 아버를 일찍 잃는 일이 오대나 되었고, 자식은 오로지 너희 둘이다. 너희가 근신하고 배움에 힘써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일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라고 하셨다. **간혹 배움을 게을리 하면 심지어는 스스로를 때리시면서 경계하시니 자식들이 두려워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本生妣星州李氏狀略> 陸用鼎, 『宜田文稿』권2, 『19세기 자료집 9』(진한 글씨 필자)

18) 을해년[1815]에 시동생 서상공(栖山公) 장굉(張滋)께서 나를 낳으시니 어머니께서 거두어 아들로 삼으셨다. **늘 책을 읽도록 하시며 이르시길, “너는 재주가 미련하니 남보다 백 배의 노력을 더 해야 거의 이루기를 바랄 수 있다.”** 양어머니 광주 이씨 가전 <先妣孺人廣州李氏家傳> 張福樞, 『四未軒集』卷11, 『19세기 자료집 6』 자애롭게 하면서도 의로운 방법을 여기지는 않았다. (중략) 나를 매우 어여빠 여기고 사랑하

후부인의 가르침이라든지, 여훈서 중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가르침 장이 있던 18세기 『한씨부훈』에 서술된 바는 그 아들을 가르치는 방도와 그 효과가 “사람의 습관에서 말미암는 사람의 선악”¹⁹⁾을 바른 방향으로 이 끌기 위한 태도나 감정을 바로잡는데 힘썼다면, 19세기 선비행장류 글들에는 이러한 훈육의 결과가 결국은 ‘자식의 공부’와 연관되는 구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이전 18세기 선비행장류에서 표방했던 ‘엄한 의방’에 대한 태도는 비슷하되 훈육의 결과로 기대하는 바는 변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²⁰⁾ 어머니에 의하여 강조된 ‘학습’의 내용과 그 시기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2) 교육의 내용과 방법 : 송경(誦經)을 통한 초학 길잡이

전술한 바, 19세기 선비행장류 글에 등장한 어머니들은 그 아들에게 엄정하게 책을 읽을 것을 명할 뿐 아니라, 아들의 배움에 구체적으로 동참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아들이 ‘이를 갈 때쯤[鬚鬣]’ 시작되며, 주로 『소학』 『맹자』 등의 경전을 외웠다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섰지만 회초리로 때릴 수 없을 때에는 혹 우시면서 “내 아들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네가 이러하니 내 어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양을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감히 문목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놀지 못했다.** <先考妣合葬誌> 李勉伯『岱淵遺藁』卷2, 『19세기 자료집 2』

- 19) 한원진, 『한씨부훈』, <敦子·婦章 第五>, 『18세기 자료집 2』이경하 역주, 35쪽.
 20) 물론, 18세기 선비행장류에서도 조구명 어머니 청송 심씨(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권 1, 이하 권수는 숫자로만 표기 470쪽), 민우수 어머니 연안 이씨(권 1 498쪽) 신경 어머니(권3 222쪽), 송명흥 어머니 파평 윤씨(권 3 430쪽), 이재 어머니 여흥 민씨(권 6 72쪽) 최창대 어머니 경주 이씨(권7 407쪽) 등이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엄하게 이것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18세기 선비행록에서는 유한준, 심육, 오광운, 이종성, 남유용, 이광사, 김주신, 이익현, 임성주, 안정복, 이복원 등의 선비행록에서는 대부분 자녀가 생활에 검약하지 않거나 이익과 의리를 구분하지 못할까봐 이를 엄격히 가르치는 모습을 보인다.

진행된다. 이를 표현한 구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처음 수학(受學)할 때 아버님께서 당시 이미 연로(年老)하셨는지라, 직접 공부를 가르쳐주시지 못하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서는 이남(二南)(『시경(詩經)』중 「주남(周南)」과 「소남(召南)」)과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 여러 책들을 가져다가 언해(諺解)하여 주셨다.”

“내가 배울 데를 잃고 놀기만을 좋아했었다. 유인이 옆에서 어르고 달래서 언해하여 소학과 맹자를 가르쳐주셨다. 내가 비록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로 인해 깨닫게 된 것이 많았다.”

“밤에 몰려 나오시면 나를 무릎 아래에 두시고 친히 읽어야할 글을 과제로 주시고 지난 번 과제로 받은 것을 읊도록 하였는데 책을 다하여야 끝나기도 했다. 누워 계시면서도 오히려 경전, 시문, 옛 사람들의 격언, 아름다운 행동 등을 입으로 불러 주시는 일을 평상의 일처럼 여기셨다.”

“책을 받은 뒤로 밤에는 반드시 무릎 아래서 암송하도록 하였고 잠자리에 서도 옛 사람들의 격언이나 덕행을 타이르며 이야기해 주었으며 때때로 경사(經史)를 들고 뜻을 풀이해 주셨으니 감히 한가로이 노닐 수가 없었다.”

“눈과 귀를 거친 것들은 모두 기억하여 잊지 않았다. 시경의 시나 이소부(賦), 당시나 송의 잠언 등 많은 작품을 들어가면서 외우셨다. 음악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셨다. 고금 인물들의 뛰어난 행적, 탁월한 절개나 역대의 치란, 나라의 전고(典故) 등을 평소 말씀하시는데 길게 하시면서도 가히 다 서술하였다. 내가 선생님께 나아가 글과 역사를 좀 섭렵하는데 좀 커서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려서 품에 안겨 있을 때 받았던 내용이 먼저 들어와 마침 익숙하게 되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1)

21) 不肖始受學，先君子時已老，不能親自勤課。先妣取二南論孟諸書，諺而授之。〈先妣墓誌〉 南公轍，『金陵集』卷17，『한국문집총간』272, 333쪽 勉伯失學而好弄。孺人每誘致之側，以諺解授小學孟子。〈先考妣合葬誌〉 李勉伯『岱淵遺藁』卷2 『한국문집총간』290, 189~191쪽. 每退已夜分，乃置奭周膝下，親課所讀書，又令誦舊所受，或盡卷乃已。在枕上，猶口授經傳詩文及詔古人格言懿行以爲常。〈先妣貞敬夫人

이러한 어머니들의 행동을 있게 하는 전제는, 어머니들이 평소 경서와 이름난 시문 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인데, 19세기 선비행장류 글에서는 이것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보여 특기할 만하다. 이전 시기의 글들에서 뭉뚱그려 ‘가언선행(嘉言善行)’으로만 언급 되었다면, 여기서는 주역의 『계사전』 첫장이라든지, <귀거래사>라든지, 두보의 <북정> 등 편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어머니들이 그러한 ‘가언선행’을 어디서부터 습득하였는지 하는 연원도 나오는데, 주로 남당 환원진의 『한씨부훈』이나 『규람』 같은 여훈서에서 습득했음 또한 알 수 있다.²²⁾

大邱徐氏墓表>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0, 『한국문집총간』293, 664쪽. <先妣貞敬夫人大邱徐氏家狀>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5, 『한국문집총간』294, 100쪽. 既受書, 夜必膝下課誦之, 枕上諄諄詔之以古人格言懿行, 有時執經史受音義, 罔敢暇逸. <先妣家狀> 韓章錫, 『眉山集』卷13, 『한국문집총간』322, 443~446쪽. 干與文字者, 耳目所過, 有記無諉. 風雅騷賦, 唐詩宋箴, 多舉篇成誦, 音義瞭然. 古今人瑰行卓節, 歷代大治亂, 國朝大典故, 燕語及之, 纒纒可述. 小子就傳涉書史, 長者或賞其曉解, 不知其受之乳抱, 先入而偶熟. <考妣墓表> 金邁淳, 『臺山集』卷11, 『한국문집총간』294, 493쪽.

- 22) 어머니도 늘 옛 문장과 경전을 즐겨 묵묵히 외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중략) 『주역』의 『계사(繫辭)』의 첫장을 외우고 있었으며 한 글자로 틀리는 것이 없었다. <先妣家狀> 韓章錫, 『眉山集』卷13, 『19세기 자료집 6』/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 도잠의 <귀거래사(歸去來辭)>, 두보의 <북정(北征)> 등의 작품을 외우셨는데 (중략) 딸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아녀자들이 『소학』, 『열녀전』 등을 읽지 않아 무식한 이가 아주 많다.” <靑灘志> 尹行愆, 『碩齋稿』卷17, <金石隨錄>, 『19세기 자료집 2』/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축목(祝牧)의 해은가(偕隱歌)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으셨다. <先妣貞敬夫人大邱徐氏家狀>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5, 『19세기 자료집 3』/ 어머니는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을 가장 좋아하셨다. 무릇 전,후집에 실려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편의 차례 등을 전부 다 외우셨고 평생 잊지 않았다. (<家言 下>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43, 『19세기 자료집 3』/ 어머니는 또한 일찍이 한남당(韓南塘)의 <부훈(婦訓)>을 보시고 이르시길, “내가 여기에서 거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先妣贈貞夫人洪氏家狀> 任憲晦, 『鼓山集』卷15, 『19세기 자료집 6』/ 외할아버지께서 영사암(永思菴) 심수근 공이 지은 『규람(閩覽)』을 가르쳤다. (중략) 그 끝에는 『예기(禮記)』의 곡례(曲禮) 및 내칙(內

이렇게 아들의 배움의 첫 시기에 자신들이 직접 가르쳐 주는 어머니의 구체적인 교육 행동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선생님을 정하여 배움을 계속하도록 하는 모습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유구 어머니의 경우, 아들의 학업 발달 사항 등 교육 내용과 그 진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까지 하는 어머니의 면모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²³⁾

이러한 어머니의 ‘아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아들이 과거를 대비할 문장을 얼마나 습득했느냐에 집중하는 듯한 ‘초학 시기’의 일화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란 아들의 스승이 얼마나 훌륭한가, 또 나의 아들이 얼마나 그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받는가를 중시했다는 일화도 있어,²⁴⁾ 앞

則)과 『소학』 등에 나오는 항목 중에서 중요한 말과 관저(關雎)·갈담(葛覃)·인지지(麟之趾) 등 『시경(詩經)』에 나오는 시편들을 덧붙였는데, 이를 모두 한글로 번역해서 집안의 부녀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밤낮으로 이 책을 읽어서 마음에 새겼으며, 한마디도 잊지 않으셨다. <先妣行狀> 李南珪, 『修堂遺集』 冊4, 『19세기 자료집 9』(진한 글씨 필자)

23)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또 내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어 널리 명망 있는 선비들을 찾아다니며 가숙(家塾)으로 데리고 가서서는, 비녀와 귀고리를 팔아 폐백(幣帛)을 갖추어 주시고 밤낮으로 성취함이 있기를 바라셨다. <先妣墓誌> 南公轍, 『金陵集』 卷17, 『19세기 자료집 2』/ 아버지게서 항상 서울에 가서 객지 생활을 하고 계셨기에 어머니께서 집에서 숙사(塾師)를 맞아다가 나에게 글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혹시 스승이 그만 떠나야겠다고 하면, 어머니께서는 곧 나를 불러서 꾸짖으시며, “이것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스승님이 절망하게 해서이다.”라 하고는, 식사를 물리치고 듣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감히 놀지 못했으며, 스승님 또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先妣行狀> 李南珪, 『修堂遺集』 冊4, 『19세기 자료집 9』 / 아들이 7, 8세쯤 되자 공부할 곳을 마련하고 선생님을 두고서 예를 보내어 가르치기를 독려했다. 조금도 쉴 날을 주지 않고 날마다 여중을 보내어 배우는 과정을 묻게 하여 “잘하여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요?”하니 학교 선생님이 웃으면서 “어머니께서 너희들에게 내일 문단(文壇)을 주도하게 하시려나보다”하였다. <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附葬誌> 徐有渠, 『楓石全集』 卷8, 『19세기 자료집 2』

24) 내가 살림에는 소홀하고 오직 글자를 보는 것만 좋아하여 때때로 매산(梅山) 홍(洪) 선생에게 나아가 공부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오활하다 여기지 않으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근심하여 안색을 바꾸고 눈물을

으로 서술할 ‘출처의 문제’와 그 시기에 있을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일화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들의 생애 주기 중 초학시기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본격적인 수학기(修學期)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행장류에 드러난 초학기 이후의 어머니의 가르침 태도와 양상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3. 출처에 대한 가르침 : 과거(科擧)에 대한 태도교육 양상

1) 과거에 대한 대의적 태도: 과거보다 수양

전술했듯, 19세기 선비행장류의 서술 전개상 이를 갈[鬢鬣] 나이서부터 그 아들의 학습과 공부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소개된 후에는, 주로 공검(恭儉)이나 집안의 동서들 간의 화목[敦睦], 또 아랫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서술되어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화소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과거(科擧)’와 관련된 문제이다. 과거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서 사(士)와 대부(大夫)를 가리는 아들의 出—處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교과 교육에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과거 급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머금으며 이르시길, “이제는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셨다.<先妣贈貞夫人洪氏家狀> 任憲晦, 『鼓山集』 卷15, 『19세기 자료집 6』

말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관로에 진출하여 현달하기 바라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19세기의 선비 행장류 글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에 대한 일화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도 18세기 선비 행장류에서도 많이 드러났던 ‘벼슬 보다는 선을 취하라’는 내용의²⁵⁾, 지나친 출세 지향을 말리는 가르침의 일화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통의 지속과 심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일화도 몇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아들의 출세 여부이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금 임금께서 세자로 책봉될 때에 내가 추천을 받아 계방관(桂坊官)을 받았다. 내가 비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타이르시기를 “내가 녹을 받는 벼슬 때문에 몸을 굽혀 네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매우 서운한 일이다. 나는 네게 벼슬하라고 권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셨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아, 세상에서 어머니 된 자로서 누가 자식의 영화와 현달을 바라지 않겠는가. 유독 어머니는 자식이 숨어서 수양하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저것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희상 어머니

내가 평소 과거 시험에 뜻을 두고서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들어왔다. 유인은 매번 가고자 하지 않으시면서 “네가 진사만 한다 해도 족하겠다. 벼슬이 높아지면 아들, 손자들과 같이 머무를 수 있겠지”라고 하셨다. -이면백 어머니

내가 일찍이 거듭 회시(會試)에 낙방하니,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르시길,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 기뻐할 만한데,

25) 민우수(1), 오광운(2), 송명흠(3) 윤광소(8), 안정복(8), 이복원(5), 신정하(6) 등의 선비 행장류에서 이러한 태도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술했듯 18세기 여성 생활사 자료집에 소개된 15인의 선비행장 중에서 거의 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8』, 보고사, 2009 (괄호 안은 권수).

연고 잃는 것에 어찌 죽히 한탄하겠느냐?”라고 하셨다. —임헌회 어머니

내가 과거를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늙으신 부모님께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여 허락을 구하니 말씀하시길, “만약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이것이 다행일 뿐이다. 그 나머지는 또 무엇을 물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부귀는 반드시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자손이 모두 어질고 효성스런 행동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다. 자식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반드시 신직하여 말씀하시길,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질지언정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마음을 두지 마라.” 또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욕심에서 말미암는다. 사람이 진실로 욕심이 없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 —전우 어머니

훈이 이미 자라서 글을 하나, 세상에 쓰이는 데 적합하지 않아서 두문불출하며 궁하게 거하였다. 유인께서 말씀하시길 “독서와 수행이면, 족하다. 영화와 이익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허훈 어머니²⁶⁾

첫 번째 유형은 아들이 과거 급제에 나아가려고 할 때나 추천을 받아 관직에 나가려고 하는 출세의 순간에서 아들의 선택을 ‘관직보다는 수양으로 권해주는 경우 이다. 이 때의 수양은 ‘독서와 수행’ 이라고 하는 두

26) 當宁冊儲, 不肖用薦剡授桂坊官. 欲引分不就職, 先妣詔之曰: “汝若屈於祿仕, 不能成就汝志, 甚可惜. 吾則不欲勸汝仕矣.” 不肖受教而藏之于心. 嗟乎, 世之爲母者, 孰不願子之榮顯. 獨先妣願子之藏修, 不欲以此博彼. <先妣墓誌>吳熙常, 『老洲集』卷16, 『한국문집총간』280, 335쪽 / 勉伯素志科第, 赴試入京. 孺人每不欲其行曰: “汝做進士足矣. 宦達可留與子孫也.” <先考妣合葬誌> 李勉伯『岱淵遺藁』卷2, 『한국문집총간』290, 189~191쪽 / 不肖嘗再屈會圍, 先妣適然不以介意曰: “無事往還可喜, 得失何足深歎?” <先妣遺事> 任憲晦, 『鼓山集』卷19, 『한국문집총간』314, 438~441쪽 / 不肖欲廢科, 以親老爲念, 輒欣然許之曰: “若苟志學, 斯已幸矣. 其他又何足問?” 又曰: “貴富不可必得, 惟願子孫皆有賢孝行.” 見諸子與人有所干, 必飭曰: “寧負於人, 勿以勝人爲心.” 又曰: “人心不安, 由有欲. 人苟無欲, 豈不樂乎?” <先妣[田在聖妻]家狀> 田愚, 『良齋集』卷17, 『한국문집총간』333, 282쪽. / 薰旣長爲文辭, 不適於世用, 杜門窮居, 孺人曰, 讀書修行, 足矣, 榮利非吾望也, <先妣孺人李氏行錄> 許薰, 『舫山集』卷22, 『한국문집총간』328, 202쪽.

가지의 구체적 행동으로 언표되며 ‘영화와 이익’으로 해석되는 관직과 대비되는 뜻이다. 그 다음 계열은 다음과 같다.

계묘년(1783)에 아버님께서 흥해(興海) 군수가 되시고 불초 소생이 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임지로 찾아가 뵙자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를, “집안이 이렇게 번성하니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성해옹 어머니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마를 쓰다듬으며 기쁜 기색을 하셨지만 이내 근심스럽게 말씀하시길 “네가 소과(小科)에 합격했다라면 내가 남은 걱정이 없을 터인데.”라고 하였다. (중략) 아버지께서 일찍부터 과거 공부를 그만두시자 어머니께서 힘껏 도와 이루도록 하셨다. 내가 갑작스럽게 품계를 뛰어올라 현달한 반열에 들고 현주가 옹주에게 장가드니 항상 근심하시며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다. 둘째 아들 길주가 문장이 자못 공교로웠고 바야흐로 밤낮으로 과거 시험 문장을 엮어대니 어머니께서 “우리집안이 이미 융성하다.”라고 했다. 길주는 드디어 다시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다.—홍석주 어머니

내가 과거 시험에 붙어 한원(翰苑)인 규장각에 제수되었다. 그 때 아침저녁으로 나를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명문가의 아들인데다 어린 나이에 이름이 크게 났으니 나는 기쁘지 않고 오히려 걱정스럽다. 가려가면서 사람을 사귀되 반드시 맑게 해야 하고 마음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비록 나를 질투한다 해도 내가 질투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닦하여도 나는 닦하지 말아야 한다. 임금을 섬기면서 곧음으로 하여 너를 낳아 준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영광과 고난은 한때이나 명성은 천추에 오래 남으니 영광으로써 명성을 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명예를 좋아함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일을 하거나 사물을 대할 때 항상 손을 잡고 이끄셨다. 내가 큰 잘못을 면하게 된 것도 오직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윤행엄 어머니²⁷⁾.

27) 癸卯先君子守興海，而不肖舉進士，往任所，先妣愾然曰，“履盛滿，而能無懼乎。”

이 일화들의 상황은 아들이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거나 벼슬에 나아갔을 때, 아들의 현달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출처관을 설파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이미 아들이 관직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봉양 때문에 벼슬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면 극구 말리면서 자신이 생각해 온 ‘출처관’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교육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러한 출처교육관의 피력은, 아들의 출처 시점이 오지 않은 경우에서도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말하는 형식으로 확장된다.²⁸⁾

<先妣[成大中妻]行狀> 成海應, 『研經齋全集』卷10, 『한국문집총간』273, 220~222쪽. / 奭周始登第歸, 先妣拊頂有喜色, 既而愀然曰: “使汝獲小科者, 吾其無餘憂矣.” (중략). 先考早廢舉, 先妣力贊成之. 及奭周驟躡顯列, 而顯周又尙主, 恒蹙然有憂色. 仲子吉周, 文甚工, 方朝夕掇科第, 先妣謂曰: “吾門戶亦已盛矣.” 吉周遂不復赴舉. <先妣貞敬夫人大邱徐氏家狀>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5, 『한국문집총간』294, 100쪽. / 余小子闡科, 卽拜翰苑奎署. 朝夕以詔告曰: “爾名家子也, 妙年蜚英, 吾不喜而憂之. 擇交必淡, 處心必公. 人雖忤我, 我則無忤, 世雖尤我, 我則無尤. 事君上以直, 無悉爾所生. 榮固一時, 名則千秋, 不可以榮而博名, 此所以不患不好名.” (중략) 卽事卽物, 常勤提撕, 余小子獲免大戾, 惟慈之訓也. 惟慈訓是承也. <靑灘志> 尹行恁, 『碩齋稿』卷17, <金石隨錄>, 『한국문집총간』287, 316쪽. / 이 외에도 이시원 어머니 청송 심씨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삼년상을 마치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들의 뜻을 거스르며 벼슬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 일화도 들 수 있다. <先考[李勉伯]妣合葬墓誌> 李是遠, 『沙磯集』冊5, 『19세기 자료집 4』

- 28) 부인은 늘 자식과 손자를 가르쳐 이르시길, “녹봉으로 봉양하는 것은 뜻을 받들어 봉양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만약 공부하지 않으면서 벼슬에 나아가기를 구한다면, 교만과 방자함으로 가법을 떨어뜨리는 것이니 내 자식과 손자가 아닌 것이다.” <先妣墓表癸巳四月> 韓章錫, 『眉山集』卷13 『19세기 자료집 6』 / 일찍이 영리를 탐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고 오로지 마음 닦기에 전심하도록 하면서 ‘근공함과 영달함은 모두 운명이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내가 비록 지극히 고루하고 완고하기는 하지만 항상 욕을 더할까 두려워하며 조금이라도 능히 뜻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추정(趨庭)의 가르침 외에 숙인이 가르치신 힘도 많다. <先妣淑人陰城朴氏家狀> 洪直弼, 『梅山先生文集』卷之五十 『19세기 자료집 2』/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수월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유형들이 섞여있는 형태로 있는 일화들이 있는 것을 특기할만하다. 오히려 상의 일화라든지, 전우, 윤행임, 홍석주 등의 일화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일화에 자신의 해석을 붙이거나, 전우와 윤행임의 경우처럼 자신의 일화에서 어머니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와 관련된 어머니의 말씀을 붙이는 경우, 홍석주의 경우처럼 자신-아버지-동생 홍길주의 다양한 양상을 거론하여 여러 유형에 대한 영수합 서씨의 반응을 보는 등의 유형으로 일화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의 확장이 주는 효과는, 이것이 단순한 어머니의 단편적인 반응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좀 더 일관적이고 평소의 소신을 확립한 어머니의 가르침으로서 읽혀진다는 것이다.

2) 권함 이면의 실제적 욕망 : 성취의 기쁨

과거를 중심한 ‘출처’의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소개되고 노출되었던 어머니의 가르침은 주로 ‘출세, 영달보다는 독서하고 수양하라’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19세기의 선비행장류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현상은 이러한 일화들이 확장되어 설명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 그 교훈성이 강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들의 가르침의 이면에는 아들의 급제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어머니로써의 “인자하심의 지극함, 정의 촉발”도 동시에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기쁨의 표출 일화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앞서

자식들이 어렸을 때 (중략) 꾸짖으며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헛된 생각을 하지 마라. 현달은 명에 달린 것이어서 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략)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뜻을 돈독하게 하고 행동에 힘쓰며 시서(詩書)를 닦고 문학을 숭상하여 살아서는 혼자 설 수 있고 죽어서는 후대인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어찌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本生妣星州李氏狀略> 陸用鼎, 『宜田文稿』 권2, 『宜田先生文集』 I 『19세기 자료집 9』

말한 ‘영달보다는 인격의 수양을 구함’의 일화 출현 빈도와 비슷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흥미롭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임자년 봄에 둘째 아들 해운(海運)이 소과(小科)에 합격하자 어머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둘째 아들이 그 때 숙부(叔父 : 成大集)의 후사로 있었는데 숙모께서 젊은 나이에 과부(寡婦)로 지내시면서 위안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이에 이르러 숙모께서 매우 즐거워하셨으니, 어머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성해응 어머니

이 아들이 19세에 군현 과거에 합격하여 합격 소식이 이르자 어머님이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셨고, 집에 인사드리러 영변에서 돌아와 몇 달 남짓 있었을 때 어머님이 마루에서 내려오셔서 손을 잡고 우셨으니, 인자하심의 지극한 것과 정의 촉발된 바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정원용 어머니

형님[金永應]이 처음 벼슬에 나아가자 어머님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너의 재주로 일찍 관직에 오르게 되었으니 조상님의 음덕이 아님이 없구나. 너는 마땅히 백배로 삼가며 부지런히 하며 사사로운 이유로 공무를 그르치지 마라.” 라고 하셨다.(중략) 내가 어려서부터 약질에 병을 자주 앓으니 어머님께서 일찍이 걱정하셨으나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는 때면 반드시 엄히 공부를 시키셨고 부지런히 힘쓰도록 경계하셨다. 장성한 뒤로는 보고 듣는 것이 고루할 것을 걱정하셔서 곡식과 책 보따리를 지고 고을의 학당이나 산방에서 스승을 따르도록 하셨다. 그러나 내가 태도와 재주가 노둔하고 게으른 것에 익숙하여 학업에 마음을 다 하지 못했다. 이에 아직 간절한 어머님의 염려를 받들어 행하지 못했는데 천지간에 아득해졌으니 회한이 차오른다. 나의 형님이 외람되이 음식로 나아가게 되고 자매들도 모두 혼인하였는데 오직 나만이 나이가 30이 가깝도록 아직 이룬 것이 없자 진심으로 걱정 해주시는 것이 말씀에 넘쳐났다. 그래서 과거 급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매번 직접 가르쳐주셨는데, 운명이 어그러져서 마침내 하루도 어머님 생전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 -김영수 어머니

병자년[1876] 이후에 아이들 형제가 과거에 연달아 이름을 올리며 10년

동안 세 번 합격하는 기쁜 소식을 알렸고 내가 공도 없이 벼슬이 올라 올 봄에는 외람되어 상서에 발탁되니 어머니께서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시며 등을 어루만지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경계를 간곡하게 하셨다. - 한장석 어머니 29)

이러한 기쁨의 표출은 위 인용문들처럼 주로 어머니의 감정 표현으로

- 29) 壬子春, 仲男海運中小科, 先妣深以爲驩. 仲男時爲叔父後, 叔母早歲寡居, 無以爲慰. 及是甚欣欣然, 先妣之驩爲是故也. <先妣[成大中妻]行狀> 成海應, 『研經齋全集』卷10, 『한국문집총간』 273, 220~222) / 兒十九發解榜聲至, 母夫人撫背而泣, 自寧邊歸親於曠朔之餘, 母夫人出軒執手而泣, 慈之至者, 情之所觸發類是歟? <先妣贈貞敬夫人龍仁李氏[鄭東晚妻]家狀> 鄭元容, 『經山集』卷18, 『한국문집총간』 300, 397쪽/伯氏筮蔭仕, 先妣感泣曰:“以汝不才, 早獲一命, 莫非祖先德蔭也. 汝宜百倍恪勤, 勿用以私廢公.”(중략) 不肖自幼脆弱善病, 先妣嘗憂慮, 而若少愈之暇則必嚴飭課工, 戒以勤孜. 及長成惟恐見聞之固陋, 許令齋糧負笈, 從師于里塾山房之間, 而不肖姿才鈍滯, 忸於惰滯, 不得專意攻劬, 未奉慈念之惓惓, 悠悠穹壤, 悔恨彌滋. 我伯氏獲叨蔭仕, 姊妹皆成就嫁適, 惟以不肖年近三十而未得成立, 惓惓憂念, 溢於言辭. 凡所科第有助之方, 每躬親指導, 命舛運否, 竟未得一日供歡於先妣在堂之日. <先考妣言行錄> 金永壽, 『荷亭集』卷8, 『한국문집총간』 322, 136~139쪽/ 丙子以後, 兒子昆季科名相踵, 十年之間, 三捷告喜, 不肖罔功冥升, 至今年春, 猥擢八座, 先妣感念君恩, 拊背涕出, 而深存倚伏之戒. <先妣家狀> 韓章錫, 『眉山集』卷13, 『한국문집총간』 322, 443~446쪽/ 돌아가시기 전 달에 내가 아버님을 위해 개성의 분감역어가 되었는데 이름이 이미 이조에 이르자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자못 기뻐하셨다. <先妣[金益福妻]墓誌己未> 金澤榮, 『韶漢堂集』卷11, 『19세기 자료집 8』 /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야 부인이 비로소 입을 열고 한번 웃었을 뿐이었다.** 내가 서부(西符)를 놓고서 벼슬이 막혀 들에서 살게 되었을 때 황량하고 괴롭고 답답하였지만 옛날에 더한 듯이 여기고 분수에 따르고 이치에 맞추면서 원망하거나 탓하는 말을 끊으셨다. <考妣墓表> 金邁淳, 『臺山集』卷11 『19세기 자료집 3』 / 네 집안에 들어와서 보니 너의 대인께서 소과(小科)에 응하시고는 십여 년 동안 다시 하지 못하셨다. **그 때 시부모님이 모두 연세가 높으셨지만 그 소망은 또한 심했다.** 그렇지만 그릇된 도로써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끝내 본 적이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글 한 구라도 빌어 과거를 보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너희들은 마음에 잘 새겨두어라.”라고 말씀하셨다. <家言 下>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43, 『19세기 자료집 3』(진한 글씨 필자)

시작된다. 기뻐하시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 반응은 칠정(七情)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 일화에서 소개하는 감정의 정도가 매우 절제되어있고, 또한 구조적으로도 이러한 감정을 격화시키지 않을 일화를 연이어 소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즉, 이 일화의 뒤에는 성해응 어머니의 일화처럼 대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개하거나, 혹은 김영수나 한장석의 글에서처럼 이러한 기쁨을 표출하자마자 바른 뜻으로 아들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혹은 어머니의 숙원이 ‘아들의 과거 급제’임을 표명하는 자연스러운 정의 토로를 어머니 유사 맨 끝에 부록처럼 배치하여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축소화시키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렇게 어머니의 바람을 중화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아들 출처에 대한 바람은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좀 더 솔직한 행동이 나오기도 한다. 김영수의 어머니 남양 흥씨처럼 과거 급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아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었다든지, 혹은 ‘성취의 책임’을 아들들에게 지우며 “한편으로는 학업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를 열심히 준비하라”는 가르침도 주게 되는 것이다.³¹⁾ 결국 이것은, 단편적

30) 걱정하시는 모습으로 “네가 벼슬길이 막혔는데 나는 이미 늙었구나. 내게 몇 년만 더 주어져 네가 성취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소원이 아니겠느냐?”고 하셨다. 이는 어머니께서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이었고 나 또한 그 뜻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 중 하나이다. 이 건(件)으로써 유사를 묶어 감히 이로써 마치고자 한다.<書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徐浩修妻]遺事> 徐有渠, 『楓石全集』卷8, 『19세기 자료집 2』

31) 경진년[1820]부터 큰 슬픔을 거듭 만나셔서 집안의 생계도 기울었는데, 청성현에 돌짜밭 수십 이랑이 있어서 내가 주경야독할 뜻을 어머니께 여쭙자 (중략) “또 서울이 더욱 멀어지면 모든 과시(科試)를 그 어찌 일일이 보러 갈 수 있겠느냐? (중략) 오직 네 집안의 명성이 혹 떨어질까 겁이 날 뿐이다. 지금 너희 아버님도 계시지 않으니 너희들이 성취 하였는가 아닌가의 책임은 어찌 나에게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한편으로는 학업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를 준비하여 열심히 열심히 게으름이 없은 다음에야 훗

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있는 현실적인 요소가 불거져 나오고 있고, 19세기 선비행장류의 글에는 그것을 ‘의방에 반(反)하는, 비례(非禮)’로 취급하여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래와 같은 글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아랫 글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이전 같으면 의방(義方)으로 막아야만 할 ‘사랑만을 주로 하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본다.

아이에게 좋다는 한 가지 일만 들어도 반드시 행하셨으며, 아이에게 해롭다는 한 가지만 들으시면 반드시 없애셨다. 밤낮으로 마음으로 묵묵히 비는 것이 있으셨다면 자식의 장수와 부귀였으며, 한 순간도 이 생각을 놓쳐 본 적이 없으셨다. 일찍이 여름에 뒷간에 앉아 똥 무더기를 보시면서 중얼거려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오래 살고 또 귀해진다면 내가 이것을 씹어야 한다 해도 피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아아! 우리 어머니님의 깊은 마음과 진정한 성실함에 신명이 감동으로 통하신 것인가? 이 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도 삼공(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역임하고 60 나이도 넘었으니 그 유래가 여기서 비롯된 것인가 싶다.³²⁾

물론, 정원용의 이 글은 19세기 선비행장류가 보여주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내밀하고도 현실적인 욕망’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날 지하에서 내가 너희 아버님을 돌아가 뵈면 면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우리 형제는 이에 감히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래서 외곽의 낡은 집에서 문예에 힘쓰고 또 때때로 하려선생의 문하를 오갔기에, 집안일을 생각하지 못했다. (후략) <先妣淑人延安李氏行狀> 許傳, 『性齋先生文集』 卷27 『19세기 자료집 5』

32) 聞一事利於兒者必行之, 聞一事害於兒者必去之, 晝宵所心祈默禱者, 兒壽而貴也, 一息頃不弛此念, 嘗暑節坐溷廁見糞蛆, 語於心曰: “使兒壽且貴, 吾咀此不避.” 嗚呼! 吾母之素衷血誠, 感通神明? 以兒庸愚懦弱, 忝三公過六秩, 其來有自矣. <先妣贈貞敬夫人龍仁李氏[鄭東晚妻]家狀> 鄭元容, 『經山集』 卷18, 『한국문집총간』 300, 397쪽.

수 있을 것이며, 이 시기 선비행장류의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화소 자체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술했던 김 영수의 어머니라든지 허전의 어머니와 같은, ‘출처’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관심을 갖고 중앙 관직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어머니들의 가르침 화소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 시기의 어머니들이 가졌던 가르침의 태도 중에서 과거(科擧)지향, 출세지향적인 솔직한 심정에 대해 전면 금기시 하지 않았던 당대의 집필 태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상 19세기 개인 문집 소재 선비(先妣)행장, 선비 묘지명, 선비 가장 등 ‘어머니’와 관련된 글 속에서 보이는 자녀 교육의 태도와 양상을 정리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글들에서 교육 주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부각하여 ‘어머니의 이상적인 모습’을 고착시키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총 30여 작가에 의하여 50여 편 지어진 『한국 문집총간』 소재 선비 행장류 글들을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항목이, 교육 객체가 되는 아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서 먼저 등장한 모습은, 우선 자녀가 배움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 “자녀를 교육할 때는 너무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하지 않았고, 그 의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教子不以慈故忘其義]라는 전통적인 기본 태도를 유지하되 이러한 의방에 따른 교육의 결과가 아들(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말로 서술될 수 있다. 19세기 선비 행장류에 등

장한 어머니들은 그 아들들에게 책을 읽을 것을 엄정하게 명할 뿐 아니라, 초학의 길잡이로서 아들의 배움에 구체적으로 동참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소학』 『맹자』 등의 경전을 외웠다가 알려주는 방식을 시작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선생님을 모시든가 스승의 문하로 보내는 역할로 발전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 아들이 과거를 볼 즈음이 될 때 행장에 다시 등장한다. 과거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교육 방침은 일견 모순된 두 방향으로 갈리는데, 하나는 과거 급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말리며 학행 수양을 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관료에 진출하여 현달을 하기 바라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를 중심한 ‘출처’의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소개되고 노출되었던 어머니의 가르침은 주로 ‘출세, 영달보다는 선을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19세기의 선비행장류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세기 선비행장류의 글들에서는 이러한 일화들이 확장되어 설명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 그 교훈성이 강화된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들의 가르침의 이면에는 아들의 급제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어머니로서의 “인자하심의 지극함, 정의 촉발”이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기쁨의 표출 일화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앞서 말한 ‘영달보다는 선을 구함’의 일화 출현 빈도와 비슷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러한 기쁨의 표출 화소가 19세기 선비행장류에서 빈출되면서 기본적으로 ‘아들이 선(善)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였으면’ 하는 원리를 설파하는 전통적인 교훈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현실적인 요소가 불거져 나오고 있고, 19세기 선비행장류의 글에는 그것을 ‘의방에 반(反)하는, 비례(非禮)’로서 여겨 전적으로 삭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19세기 선비 행장류의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한 양면적 서술은 교육 주체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형상화 면에서, ‘이념에 충실한 원칙적인 모습’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서술자의 당위적 의식이 다소 유연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선비 행장류의 저자였던 아들들의 경험상 많이 겪었던 일을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목표와 욕망을 이전 시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대적 특징 또한 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미 조혜란 외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8』, 보고사, 2009.
- 차미희, 김경미, 조혜란 외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 보고사, 2013.
- 김경미, 『가와 여성』, 여이연, 2012, 1~319쪽.
- 박종배, 『조선시대 교육의 과정 및 실제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교육사학』 28권 1호, 2006, 63~94쪽
- 박홍식, 『가정교육 담당자로서의 전업주부의 역할과 가정문제』, 『유교 사상 연구』 30, 2007, 313~340쪽.
- 이은영, 『한문 산문에 투영된 어머니』, 『고전여성연구』 14, 2007, 113~151쪽.
- 이화형, 맹문재 외, 『자녀교육』, 한국 근대여성의 일상문화 6, 국학자료원, 2004, 1~427쪽.
- 지영숙,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에 대한 재조명』, 『한국 가정 과학회 학술발표 대회 자료집』, 2002, 3~6쪽.

ABSTRACT

Mother's Lessons in 19th Century Chosŏn
- written in records of a deceased mother's life (先妣行狀)

Kim, Hyun-mee

This paper's purpose is to see many aspects education of children by 19th Century Chosŏn mothers, and to analyze them to know what aspect make them a ideal mother and a good teacher.

In all this 50 records of a deceased mother's life(先妣行狀) written by 30 authors of 19th Century, two motifs of Mother's teaching are working as elements of motherhood along their son's life cycle.

The first motif is an aspect of typical teacher with strict manner to her school-aged children. This teacher's goal is her children's learning. For that, she memorize some phrases of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say to her children.

The second motif is to teach her son a mental attitude toward civil service examinations(科擧). There are 2 type of mental Response to civil service examinations, one is traditional thing, that is, she regards the cultivation of her son more precious than her son's fame. But at the same time, She exposes her wants of her son's riches and honors badly.

Key Words Mother, education of children, 19th Century, records of a deceased mother's life (先妣行狀)

논문투고일 : 2014. 4. 29

심사완료일 : 2014. 5. 25

게재확정일 : 2014. 6. 2

